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혁명

총선특보 2호

발행일 : 2012년 3월 17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E-mail : wrp@jinbo.net

야권연대에 맞서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세워내자!

죽 쒀서 개준다고, 투쟁은 노동자 민중들이 다 해왔는데 성과는 모두 민주통합당이 다 가져갈 판이다. 이명박 정권에 맞서 2008년 촛불투쟁부터 현재 한미FTA 반대투쟁까지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구속, 연행되고 온갖 탄압도 불사하며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투쟁이 '반MB 야권연대'를 위한 투쟁으로, 죄다 민주당을 위한 투쟁으로 왜곡 수렴될 위험에 있다.

민주당이 어떤 세력인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2천명 가까이 노동자를 구속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을 밀어붙여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노조 말살 · 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철저히 1% 재벌, 자본가계급의 천년왕국을 위해 99% 노동자 민중들을 억누르고 생존권을 파탄으로 내몬 자본가 정권, 그것이 민주당 정권 아닌가.

민주당을 되살려놓은 반MB 야권연대

그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몰락하고 더 이상 가망 없을 정도로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던 이 민주당이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기사회생 했다. 그리고 '반MB 선거심판'을 내세워 이제 다시 집권욕을 불태우고 있다. 누가 이 민주당을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이렇게 살려주었는가?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 정치세력과 계급협조 야합을 추진해 온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관료들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표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에 목을 매어온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다.

정계진출 출세욕에 불타는 노조관료들, 그리고 의석 확보를 위해서라면 노동자 정치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본가 정당과 통합/연합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진보정당들이 바로 민주당을 살려놓은 주범들이다. 이 반노동자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반MB 야권연대 전략이다. 그리고 바로 이 반MB 야권연대 전략 구도 속에서 야4당(야5당) 중재단을 만들어 현자비정규직 25일간 점거투쟁을 비롯해 쌍용차, 금호타이어, KEC, 한진중공업 등 노동자 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왔다.

노동자 민중들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새누리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 지배체제와 그 일부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대중들은 지금 결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과 진보정당들에 의해 민주당 지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운동 내 이들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들이 집권 기간 철저히 폭로되어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민주당에게 야권연대라는 신임장을 바치고, 노동자 민중들을 다시 민주당 주위로 불러 모은 것이다.

대선 참패 뒤 끝없이 추락하고 있던 2008년 촛불투쟁 당시 민주당의 초라했던 몰골을 상기해보라.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촛불투쟁이 전개되자 민주당은 촛불에 개입하고 싶어 했지만 시위 대열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거부당했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알다시피 촛불투쟁의 내용이 급진적, 반자본주의적이어서가 아니다. 집권 기간 동안 대중들의 경험으로 이미 그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실체가 철저히 폭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던 민주당이 어느새 작년 희망버스에 이어 이제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는 당당히 대중집회 연단에 올라 노동자 민중들의 반이명박 분노에 대한 정치적 대변세력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노조관료들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전략 덕분이다.

대기주의를 떨쳐내고, 정세를 책임질 대안적 구심을 세워내자!

그렇다면 다시 촛불투쟁과 같은,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중투쟁이 타오르면 기만적인 야권연대가 힘을 잃어버리고 민주당은 고립되거나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2008년 촛불 같은 자생적인 대중투쟁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권연대 같은 제도정치권과 의회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의존할 것도 없었던 2008년 촛불 당시의 대중 동력이 현재는 반MB 야권연대에 의해 대부분 수렴되거나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반이명박정권'/ '반새누리당'만으로는 설사 촛불과 같은 자생적인 대중동력이 올라오더라도 결코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을 넘어설 수 없다. 국회의 비준 이후 전개된 한미 FTA 반대투쟁 같은, 일시적으로 의회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대중투쟁에서도 민주당은 야권연대 지지 세력들에 의해 '국회 내에서 야권연대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을 뿐, 야권연대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민주당이 폭로 타격받고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지금 한미FTA 반대투쟁의 성과는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다 챙기고 있지 않은가.

대중투쟁이 자생적으로 터져 나오기를, 그것도 그 내용이 반자본주의적, 변혁적인 방향으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는 식의 대기주의를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 진전되면 그 속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위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따위의 환상을 깨야 한다. 야권연대에 맞서는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1% 자본 독재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어떻게 반MB 야권연대와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인 총기치와 대안적인 전국정치전선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혁명적 정치조직들, 계급협조에 반대하는 평조합원 현장활동가들,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활동가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결집하여 야권연대에 맞설 대안적인 정세구심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전국 정치전선을 치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한미FTA 반대투쟁,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야간노동 철폐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대학 등록금 폐지투쟁, 물가폭등에 맞선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쟁취투쟁, 민영화 반대투쟁, 해적기지 건설 반대투쟁, 전쟁 반대/핵 반대투쟁, 재벌 반대투쟁 등 모든 투쟁전선에서 이러한 대안적 정세구심을 작동시키자. 그리고 대안적인 전국정치전선 아래 이 모든 투쟁들이 배치되어 반MB 야권연대를 딛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자. **혁명**

[공공운수 노동자]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자!

4. 11 총선을 앞두고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부문 법제도 개혁 △노동탄압·선진화 정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2012년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투쟁의 포문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이 열었다. △공공기관 해고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복직과 사면복권 △국회를 통한 공공부문(공공기관) 노동탄압 국정조사, 국회 상임위원회의 해고자 원직복직 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 기댄 청원운동과 여론전

올해 총선 대선 정국에서 선거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동안 억눌리고 탄압받았던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공운수노조/연맹 지도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여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진보정당'(민주통합당과는 추진 중)과 맺은 '정책협약'[▲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등의 정책과제]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권에 기댄 청원운동은 여론전을 통한 '압력넣기 식'이나, '보여주기 식'의 관료들만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협약'에서 밝힌 "공공부문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방향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손잡는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권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신 나간 이야기이다. 공공부문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공부문 노동권을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관료들이 말하는 '진보정당', 즉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폐기하고 자본가 정당인 유시민의 국참당과 통합하여 만든 당이다. '노무현 정신'을 떠받드는 국참당이 집권했던 때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한 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쏟게 했다. 또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국참당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것이다. 1,052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구속했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두산중공업 배달호, 세원테크 이해남,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등 수많은 노동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런 국참당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노심조)와 야합해 만든 게 바로 통진당이다.

출세주의 조합관료들을 제끼고 투쟁에 나서자

이러한 통진당이 다시 총선 대선에서 반노동자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승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겠다는 것이 바로 '반MB 야권연대'이고 '반새누리당 선거심판론'이다. 이렇게 민주당 중심으로 집권하는 '공동정부'가 공공부문 노동권을 지켜줄 것이라며 선거에 의존하여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기피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과의 정책협약'의 실체이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런 정책연합을 거치면서 국회와 지자체로 정계 진출할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대중들에게 노동조합은 더 이상 투쟁이 거세된 속빈 강정으로, 조합관료들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정치권 로비 기구로 전락해버린다.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이러한 출세주의 조합 관료들이 지배하는 노동조합을 갈아엎고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 '공공부문 선진화 민영화 분쇄', '민영화한 공기업의 재국유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나아가 △일체의 해고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보장! △재벌 몰수 국유화! 은행 국유화! 기간산업 (재)국유화! 노동자통제! 등을 내걸고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서자.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정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로 인해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다. 2013년 이른바 '진보정당'과 야권연대가 승리해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세계대공황이 격화되면서 자본의 위기 전가를 위한 공격에 앞장 설 것이다. 2008년 이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민주의 정부들이 그러듯이 말이다.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믿을 건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뿐이다. 조합관료들의 청원과 로비 정치, 여론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자. **혁명**

왜 노동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야만 하는가!

3월 13일 월요일 도시철도 기관사 故이재민 조합원이 자신이 매일같이 일하던 바로 그 선로에서 동료의 손을 빌려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9년전인 2003년 이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故서민권, 故임채수 기관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두 동지의 죽음이후 투쟁으로 도시철도 기관사는 최소한 "자신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었다. 그러나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1년도 가지 못했다. 세상은 미친 듯이 "경쟁"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외쳐댔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아픈 노동자에게는 더욱 잔인하였다. 산재요양으로 복귀한 노동자에게 전환배치를 강요받거나, 자진 퇴직하도록 내몰았다. 그것도 모자라 2010년에는 병가사용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시켜버리기까지 했다.

현장의 노동조건은 100배는 더 열악해졌다. 기관사의 일거수 일투족(수동운전실적, 제안제도 실적, 회사내 각종 동아리 실적, 본사 회식참석 실적, 민원실적, 업무후 봉사활동 실적.... 등등)은 개량지표로 평가되었고, 개인별, 팀별, 소속(공장)별 평가가 이어졌으며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차장면담, 소장면담을 받아야만 했다. 기관사들은 오로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쳐왔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저들 자본가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개인이 마음을 굳세게 가지지 못했다고 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거나, 세상을 비관하는 비관주의자였다 거나등등. 자본가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약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책임질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들을 끌어내리고 아프면 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철도의 노동자들도 변해야한다. 혼자서 지옥같은 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동지들을 믿고 떨쳐 일어나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당당하게 근조리본도 달고 사내게시판에 욕이라도 하고 분양소에 향이라도 하나 피우자! 그런 행동들이 진정으로 죽음으로 고통을 호소해야만 하는 이 더러운 세상을 끝장내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다! 투쟁! **혁명**